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서산대사 진영.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사명당 유정 선사 진영.

7년 왜란 끝낸 숨은 주역 '의병'

임진년 난리를 당하며

곽재우의 지음 | 오희복 옮김
보리 | 3만 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해 7월, 서산대사 휴정(1520~1604)은 73살의 노구를 이끌고 묘향산 보현사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례해 의병을 일으켰다. 금강산 유적에서 거쳐하던 사명당 유정(1544~1610)도 강원도 금강산에서 승병을 모았다. 이들이 평양에서 합류해 12월 10일 평양성을 공격하자 고니시 부대는 성에 불을 지르고 열어붙은 대동강을 건너 도망갔다. 사명당은 당시의 상황을 중사(使, 임금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에게 이르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진영에서 만나 뵈니 이것 정녕 우연인데 / 깊은 밤 북소리를 함께 듣게 되었어라

/ 남방의 일 어찌가고 임금님 물으시면 / 머리 센 늙은 중이 성 지키다 일러 주오." ('중사와 작별하며' 전문)

흔히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곳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펼쳐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과 관료들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사이 백성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유생 곽재우(1552~1617)는 사재를 털어 의병을 일으켰고 전라도 담양에서는 선비 고경명(1533~1592)이 백성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분종토적(중성을 다해 적을 친다)'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왜적의 침입을 막아냈다.

산중의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명대사는 스스로 승병 대장이 되어 잠간 사이에 5천여 명의 승려를 모아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사명당은 전쟁이 끝난 후 외교 사절로 일본에 건너가 조선인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사명대사는 함경도 백성들에게 보내는 격문(格文)에서 "그대 부모 된 자들이여! 나라가 망하면 집을 어이 보전하며,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부디 자제들을 잘 타일러서 나라를 저버리지 않게 하라"고 호소했다.

당시 승유역불 정책으로 사찰과 승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지만, 전란 앞에서는



1592년 12월 10일, 서산대사와 관군이 왜군 점령하에 있는 평양성을 공격하자 왜군은 성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그림은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평양성 전투도'.

이 같은 차별도 무의미했다. 의병장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1554~1593)는 사찰에 격문을 보내 자신의 아버지와 아우가 전사한 일을 들어 "생각건대 불교 교리는 자비로써 근본을 삼았거니 나의 오늘의 처지가 어찌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승병 조직을 촉구했다.

<임진년 난리를 당하며>는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 사명당, 곽재우, 조현, 고경명 등 의병장 9명의 작품을 모은 책이다. 가려 뽑은 420여 편의 시와 격문 20여 편에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나라를 위해 죽어간 의병들의 활약상과 고향과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이 애절하게 담겨 있다. 특히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작품에서는 스님이면서 나라를 위해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

에 대한 아픈 성찰을 읽을 수 있다.

서산대사는 '남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며'에서 "하늘을 높고 땅은 두터우니 / 우리 조선은 만년 세월 영원하리라"며 나라 사랑을 표현했고, 곽재우는 '싸움터'라는 시에서 "고함 소리, 북소리는 바닷물을 삼키던 듯 / 번뜩이는 칼날들은 붉은 해를 덮었는데 / 수천 명의 원수들을 삼대 배듯 하였어라"며 당시의 투쟁을 묘사했다.

보리출판사가 북한 문예출판사의 <조선고전문화선집>을 <겨레고전문화선집>으로 다시 펴내는 시리즈 중 9번째 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오희복 박사 부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웅글다소리가 깊고 굵다. 보리가을(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일) 등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북한 방언을 그대로 살려 우리말의 풍부한 모습을 확인



마조어록
김태완 엮음
침묵의향기
9천 원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선어록을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선 공부를 위해 읽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 공부를 위해 선어록을 읽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최근 마조도일(709~788) 선사의 선어록을 풀이한 <마조어록>을 펴낸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선어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선어록은 깨달음을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하며, 선어록을 통해 다양한 광경을 만

어디에 마음도장 찍을까?

나더러도 결국은 목적이 깨달음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깨달음으로 가는 뗏목으로 선택한 <마조어록>은 <만신찬속장경(萬新纂續藏經)> 제69책 <마조도일선사공목(馬祖道一禪師廣錄)>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책은 원문과 번역, 주석, 도음말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김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문은 가능한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고, '주석'은 여러 용어의 설명이나 바쁜 견해를 풀이한 것. '도음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선의 세계와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곧바로 쉬는 자리를 암시하는 것"이다.

"남악화양에게는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직 마조도일만이 은밀히 마음도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4장 '인가(印可)'에서는 "마음도장"을 "마치 도장을 선행하게 찍듯이 마음 역시 분명하게 깨달아 확인하므로 마음을 마음도장이라고 한다"고 풀이한 후 다음과 같은 도음말을 덧붙였다.

"마음도장은 어디에다 찍을까? 허공에다 찍는다. 허공 어디에다 도장을 찍을까? 살펴보면 벌써 한참 어긋났다."

책 말미에는 마조도일 선사의 생애와 마조선 해설, 선종 법계보, 중국 선종 연보 등을 모아 부록으로 엮었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책선(箕城峽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초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우리말로 보는 사십이장경

최초로 중국에 전해져 한역(漢譯)된 <불설사십이장경>은 제목에서 보듯이 부처님의 설법을 42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불교 교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고(苦)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을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 설하고 있다. 또한 불교 수행의 목표를 간단명료하게 서술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성법 스님은 "우리나라에서는 동북아시아권에 부처님의 말씀이 최초로 전해지게 한 <불설사십이장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워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한다. 1993년 망월사에서 펴냈던 내용을 다듬어 다시 펴낸 것이다. 성법 스님은 현재 남한산성 망월사에 머물고 있다.

성법 스님 옮김
정우서적
4천 원

새로나온 책

■ <라마나스라마에서 보낸 편지>(수리 나감마 지음, 대성 옮김, 탐구사, 2만 원)=인도의 영적 스승의 한 명인 바가반 스리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제자 수리 나감마가 마하르쉬의 삶과 가르침을 전한다. 수리 나감마는 마하르쉬의 생애 마지막 5년간에 걸쳐 구도자들과의 문답을 편지 형식으로 담았다.

마하르쉬는 17세에 남인도 타밀나두 주의 성산(聖山) 아루나찰라로 출가해 54년 동안 그곳에서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했다. 제자들과 나는 문답에서 마하르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보편적인 화두를 제시하고, 이러한 자기탐구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 <Click>(장간호, 리더스넷)=명상전문 월간지 <Click>가 창간했다. 한국인 교포 게이트(Gate)가 운영하는 인터넷 명상모임 붓다필드(www.buddhafield.or.kr)가 창간한 이 잡지는 '자유'와 '깨달음'을 주제로 참다운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이수성 前 국무총리는 "기성의 권위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하는 붓다필드의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월간 <Click>이 내적인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 열린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장간호에서는 회원들의 글과 인터뷰, '붓다 명언록', '생활 속의 명상요가' 등이 실려 있다.

■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레이 그리·진 스윙글 그리 지음, 김익현·안기홍 옮김, 다룬세상, 1만5천 원)=우리가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을 거쳐 탄생한 것들이다.

하지만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며 진행된 동물실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인원환자의 15%에 해당하는 10만여 명이 약물 거부반응으로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물실험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과 그 실험으로 탄생한 약물은 안전할까? 책에서는 동물실험의 비윤리성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통한 약물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등록 전 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문제연구소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인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마로보인 전등록>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내세의 영체에 대한 법설,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2개월여만에 3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도서총판 운주사 8월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에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3개월간 자재만현스님의 매주 불교TV 방송설법(12회)을 시청하시라!

현지금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